

윤석천의 '우리와 경제'



어차피 메스를 들었다면

수술이 최선책은 아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수술이다. 아프고 위험해서다. 하나, 수술 외에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을 경우엔 어쩔 수 없다. 고통이 두려워 수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끝내는 질병이 우리를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술을 할 수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고 싶고 해야만 하지만 '타이밍'을 놓쳐 메스를 댈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출하지 못한 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 약 2400여 개에 달했다. 일시적 질병이 아닌 만성질환에 걸린 한계기업이 약 74%에 달하는 것이다.

재벌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30대 그룹 계열사도 다섯 개 중 한 곳은 좀비기업이다. 약 23%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 생태계가 위중하다.

이들 기업은 벌써 수술을 받았어야 했다. 자연 치유될 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 방치했다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고착화시켜 마침내 한국 경제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 국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결국 이들을 애써 살리느라 투입된 자원만큼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 창의성과 혁신 능력을 갖춘 우량 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도 금리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의 최대 거래 상대국인 중국의 경제 상황마저 약

화되고 있다. 한계기업의 병은 치유 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동시에 전염성(시스템 리스크)도 점차 커질 것이다. 자칫 은행과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마침내 '수술'을 결정한 듯하다. 연말까지 대기업을 포함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나 여기까진 대부분 이견이 없다.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할 것인가가 문제다. 무엇보다 고통 분담의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구조조정은 '외과 수술'과 같다. 시켰다 하면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 그래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실직자가 양산되는 등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만 약 1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거란 전망이다. 모두가 '타이밍'을 놓쳤기에 벌어지는 참상이다. 이른 시기에 치료를 시작했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이다. 하나, 늦었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수술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문제는 수술로 인한 고통을 과연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정말 구조조정의 의지가 있다면 공정·공평해야 한다.

원칙이 지켜지면 고통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대마불사'란 어이없는 상황이 재현되서는 안 된다. 대기업을 제쳐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만 집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한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선 안 된다.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전가시켜서는 구조조정의 명분이 사라진다. 더 이상 책임을 약자에게만 물어서는 안 된다. 강자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합의에 의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의 병은 이미 깊다. 수술 외엔 대안이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나마 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라 생각해야 한다. 단, 시작한 거 제대로 해야 한다. 이번 '타이밍'도 놓치면 그야말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 <경계평론가>

社說

재난 위험 뻔히 알고도 돈타령만 하고 있다니

광주·전남 지역의 주민들이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재정난 때문에 손을 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화재, 안전·교통사고, 범죄, 감염병 사태 등을 진단해 광역·기초단체별 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엇그제 정부 발표에서 광주는 자연재해와 범죄 등 2개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전남은 더 열악해 자연재해·화재·교통·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 5등급으로 분류됐다.

더욱이 전남 일부 시·군은 위험시설에 대한 자체 보완책 강구조차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들이 재정난으로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보수나 재가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전남도에는 재난발생 위험이 큰 안전등급 D등급 이상 시설이 교량·연립주택 등 모두 19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도비 지원이 안 돼 속수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재정난 때문에 손을 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마다 의료관광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광주·전남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들을 유치하는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자체의 정책 지원이나 마인드가 미흡한 탓이다. 근래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이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의료관광 현황 및 정책 과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의료관광객은 2228명으로 전국의 0.8%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 1.1%에서 2012년 1.5%로 다소 늘었으나 2013년 1.2%, 2014년 0.8%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등록 의료기관 수도 89곳으로 전국 2882곳의 3.1%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은 모두 24곳에 그쳤다.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니 관련 산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 지원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실제로 전국 7개 광역 지자체와 13개 기초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전남조직을 만들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나서고 있는 데 반해 광주·전남의 지자체에는 조례뿐만 아니라 전달 조직도 없는 실정이다.

의료관광은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진료 수입 등 관광객 지출 비용이 많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면 지역에 반만 오는 2020년까지 생산유발효과 830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467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3075명에 이른다는 조사도 나왔다. 특히 이달 말 개관을 앞둔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도 있다. 인프라 구축과 의료관광지구 조성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종교칼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김성원 광주중흥교회 목사

자랐습니다. 그래서 몸집이가 벌써 70~80cm, 두 자가 훨씬 남습니다. 거기다 알까지 뺏겼습니다.

그런데 강 상류 쪽 수심은 한 자가 채 되지 않고, 거기다가 바닥에 자갈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미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등이 거의 절반이나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절대 쉽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머니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몽구리고 있다 벌려서 꼬리지느러미를 한 번 험차게 휘젓는데, 그러면 겨우 자갈돌 하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어는 수백m 강을 거슬러 올라가 자기 태어났던 그 자리를 찾아 거기에 알을 낳고 곧바로 죽습니다. 바로 그것이 연어의 한살이입니다.

또 매미의 한살이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매미 애벌레는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 거기에서 짧게는 3~6년, 북미 매미처럼 길게 머무는 종류는 13년 내지 17년 동안을 굴뚝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 후 날 좋은 맑은 날 해질 무렵 땅 밖으로 기어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탈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날 아주 시끄럽게 울어대는 어미 매미가 되는 것인데, 매미가 그렇게 어미 매미로 지내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겨우 한 달 정도를 성충으로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후 찌죽기를 하고, 알을 낳은 후 어미 매미는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좀 언급해지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라 한다면, 그들은 그 한 번의 사명, 혹은 존재 목적을 위해 그 오랜 기간을 인내하거나, 그 존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몸부림하다,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잠정하게 죽음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나름 똑똑하고 잘난 듯하지만, 썩 똑똑하

게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당신의 존재 목적을 다 달성하고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까?”하고 묻는다면, 누구라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겨우 몇 톨 돈이나 벌고, 신기루 같은 출세나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그중마저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다시 한층의 흠이나 재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 터...

당신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그것을 위해 살 때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 고

호남의병 정신을 되돌아 보자



범지현 호남의병연구소장

의 통과로 '의병의 날'로 제정한 경북 의령군에 가서 의병기념관 및 객재우 장군생가에서 채취한 훈 배 행사부터 의병탑에서 거행된 의병제 추모공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필자는 의병제 행사를 통해 진한 감동을 받았다. 남녀노소 전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거행된 행사에서 400년의 역사의 시공을 넘어 전 해오는 살아 숨 쉬는 의병의 혼과 정신을 보았다.

나는 의령의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광주를 생각했다. 왜 광주를 의향이라고 하는가? 지금 우리는 의병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일관에서 한발 6·10항쟁에 이르기까지 호남의 기라성같은 의병장들 학자들 장군들을 위한 행사나 축제는 없는지? 타향이나 외국 사람이 광주정신이 무엇이나? 호남정신이 무엇이나? 그 물음 우리는 의향이라고 대답하는데 그 실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구현되어 있는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봉기한 호남연합 6000명 의병의 대의 구국정신을 반드시 기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정신을 바탕으로 김태원 장군을 비롯한 많은 임란 및 한말 의병 및 의병사를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연구할 필

요를 절감하였다.

의령에서 돌아온 후, '호남의병연구소'를 세울 것을 결심, 김영용 4·19통일의병대 의병장에게 사실을 말하고 장병관 의원에게 취지를 설명하자 장 의원은 “참여하신분들을 영남의병과 호남의병의 격을 맞추고 호남의병들의 후손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필자는 즉시 창립인사에 이어 의병 후손들에게도 경위를 설명, 참여를 독려했다.

서명원 호남학진흥원 이사장이 '호남의병과 4·19통일정신'에 대해서 발표했고 필자는 호남의병의 창의정신을 통해 일본과의 역사 갈림길을 살펴보고 싶었다. 고려 전기 만해도 한·일간의 역사는 문제가 없었는데 11세기와 13세기에 걸쳐 그리고 19세기 근대화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일본에 뒤진 역사 때문에 의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

또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잘못된 근현대식 소총으로 무장한 왜군을 화승총이나 활·창 등으로 맞고 솟자적으로도 1만5000명의 왜군에게 6000명의 의병이, 그리고 700명의 의병이 1만명의 일군과 대항에서 싸운 그 혼을 결코 잊거나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의 의는 빛나고 있지만 광복 70년 속에서 의병정신을 되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 아닌 것을 고민하면서 거행된 '호남의병연구소 보고회 및 창립기념세미나'는 상상 외로 성공적이었다.

첫째로 고경명 선생의 후손인 고호석 선생을 비롯, 김남전(김천일 선생 후손) 김창호(김덕령 장군 후손) 안상현(청계 안영선 생 후손), 최갑환(최경희선생 후손), 김영광(선무원종공신 오재 김인갑 후손), 김갑재(김태원 장군 후손)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

이홍범 박사에게 “동서양 저명한 학자들이 중국을 알려면 태평천국을 알아야 하고 한국을 알려면 대원군과 동학농민혁명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자 이 박사는 영감을 받고 “아시아 이상주의”를 써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잘사는 나라를 보면 조상을 잘 모시고 과학문명이 우수 했다”고 말했다.

니토베이나조(新渡戶 稻造·1862~1933)가 일본정신이 무엇인가? 라는 미국인구들의 질문에 무사도를 써서 일본을 세계에 알렸듯이 필자는 앞으로 '이로운 광주정신, 대의를 승화된 의병정신'을 국내외에 펼쳐나가고 싶다. 호남의병정신은 무엇인가? 라는 창립 슬로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호남의 많은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보는 화두가 되었으면 한다.

無等鼓

자고로 강력한 적에 맞서야 하는 권력이나 재력가들은 때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역을 활용하곤 했다. 암살에 대비하거나 적을 속이기 위해서였는데, 동서양의 역사엔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유명한 대역 가운데 한 명이 클리프턴 제임스다. 그의 '원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명장인 영국 몽고메리 원수다.

1944년 6월 6일, 수세에 몰려 있던 연합군은 북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사상 최대의 상륙 작전을 감행, 독일 본토로 진격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무모해 보였던 작전이 성공한 데는, 연합군이 독일군 지휘부를 교묘히 속여 남긴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연합군 지상군 사령관이었던 몽고메리 장군은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가 아닌 프랑스 남부에서 공격할 것'이라는 확신을 독일에 심어 주기 위해 상륙작전 직전 프랑스 남부인 지브롤터로 떠났다. 독일군 지휘부는 적군 사령관이 갑작스럽게 지브롤터를 방문하자 '연합군의 프랑스 남부 상륙이 임박했다'고 생각해 북부에 대한 방비를 소홀히 했고, 연합군은 그 빈틈을 공격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노르망디 공격 준비에 바빴던 몽고메리 장군을 대신해 처칠 수상의 비행기를 타고 지브롤터를 방문한 사람은 다름 아닌 클리프턴 제임스였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카이로로 간 뒤 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숨어 지냈다. 이처럼 대역은 잘만 활용하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속임수로서, 대부분 '나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북한의 김정일은 '암살과 쿠데타에 대비해' 평소 대역을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유병인 전 세모그룹 회장도 대역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은 대역이고, 당사자는 어딘가에 살아 있다는 것이다.

최근 4초 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또다시 '대역' 논란이 번지고 있다. '중국에서 죽었다는 조희팔은 사실 대역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유병인과 조희팔은 똑 같은꼴인데 이번 수사만큼은 똑 닮은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대역(代役)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